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II)

(시편 36:1-12)

복락은 영어로 'delight', 기쁨의 뜻입니다. 에덴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물은 충만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버린 사람이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의와 짝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곧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공의로우심, 이어서 주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1. 주의 심판하심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6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가 산들과 같다고 했는데(6절),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바다’와 같다는 말은 심오하다는 뜻으로 주의 심판은 오묘막측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이 한숨이며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이다”(6절).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높고 낮은 사람, 그리고 짐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벌써 망해야 할 인간들까지도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2. 의인이 받을 복

악인은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는 의인에게는 큰 복이 임하여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 (1) 만족함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환경을 언제든지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부자며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36편에서 만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8절)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집’은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주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집을 말한 것입니다.

스펠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은 셋집에 살던 이가 큰집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다. 새집에 온 막내아들이 이 방 저 방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주의 날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의 기준은 경건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지, 아닌지입니다. 눅 13:34에서 당시 군중들은 큰 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늘을 벗어나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벗어나면서 복락의 강물만 마시려고 합니다.

으로 뛰어다니면서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외친다. 소년은 아버지의 계획과는 상관없다. 그냥 크고 새로운 집이 만족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자기 자녀에게 만족함을 준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2) 기쁨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8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한다면 ‘주의 에덴의 강’입니다. 에덴동산에 흐른 4개의 강줄기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마셨던 그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 (3) 생명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9절).  
의인에게는 생명과 빛의 두 가지 복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 1:4에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시 36:9 말씀을 기억하며 “그가 없이는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고”라는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 (4) 빛

‘주의 빛’은 모든 생명을 발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우주에 빛이 없었다면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성장하기도 하고 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영광은 우리가 외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 3.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이다”(7절).

주의 날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의 기준은 경건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지, 아닌지입니다. 눅 13:34에서 당시 군중들은 큰 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늘을 벗어나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벗어나면서 복락의 강물만 마시려고 합니다.

다윗은 주를 아는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10-11절). 그리고 마침내 만족한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자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재기할 수 없는 사회에 비로소 기쁨의 강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크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총회 성경 표준주석 출판

-우리교회 지원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90회기 총회(2005년)는 총회장  
립 100주년(2012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회 성경 표  
준주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본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  
념에 따라 집필 원칙, 지침, 집필자 선정, 주석의 형식  
등 기초 작업을 하던 중 총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  
해 이 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교단의 미래와 한국교회에 신학적 표준을 제시할 중

차대한 사업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교회 당회는 이종운 목사가 표준  
주석 출간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총회 표준주석 출판에 관한 경비(연구비, 원고료, 출판  
비 포함) 전액 약 3억 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8일 목회정  
책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연탄사주기 · 사랑의 온차(溫茶) 나누기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축하하는 성  
탄절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의 헌금을 하나님  
께 드린다. 올해에도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  
는 연탄조차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연탄을 사  
주고, 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추위와 싸우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부의 박  
광일 전도사와 가난으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온 교  
회가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라  
고 있다.

## 2007년도 교사 임명 및 교사 총회

교사 총회: 19일(화)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2007년 한 해 동안 각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임명받  
는 교사들의 명단은 주부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한편 오늘 임명받은 교사들은 오는 12월19일(화) 저  
녁 7시부터 시작되는 교사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이날 총회는 경건회 후 2006년도 교사가 부서별  
로 모이고 난 후 2007년에 봉사할 교사들이 모임을 갖  
는 시간으로 준비된다. 식사는 저녁 6시부터 각 교육부  
서 여자 부감들이 함께 준비하여 만나홀에서 천교의 시  
간을 갖는다.

## 2007년 청지기 수련회 열려

1월8일(월)-13일(토) 6일간

2007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의 섬김위원으로 임  
명받아 봉사하게 될 청지기들의 수련회가 열린다.  
2007년 청지기 수련회는 1월8일(월)부터 13일(토)  
까지 6일간 계속된다. 청지기 수련회 기간 중 새벽기  
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박노철 목사(구리 지  
구촌교회)가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하게 되  
며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6시부터 101호 웨스트

민스터 홀에서 담당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  
회가 시작된다. 청지기 수련회에 참석할 섬김위원들  
은 장로, 권사, 집사 등 중직자와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  
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등 청지  
기 전원이다.

## O.C.U 여호수아회 600회 조찬모임

-OCU, KMCF 50주년 감사예배-

OCU(기독교장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2  
월10일 국방부 중앙교회당에서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  
(회장 육군대장 이상희)와 한국 예비역 OCU 연합회(회  
장 예비역 중장 정인균) 공동주최로 이종운 목사의 '민  
족 영웅 다윗처럼'이라는 제하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또한 12월12일(화)에는 우리교회당에서 매주 모이  
는 OCU 서울강남지회(여호수아회) 600회 조찬 모임을  
갖고 백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성대하게 감사 잔치를

벌였다. 화요일 새벽마다 모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  
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걸고 기도하면서 공부해 온 창  
세기 책거리를 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강사로 수고하신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했다. 이종운 목사는 지난 4년 2  
개월 동안 창세기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제목의 설교로 마  
무리 지었다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선교사님들께 편지를-

순례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온 교회가 참여하는 그  
림 트리 꾸미기 이벤트를 갖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그림  
트리나무에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성탄 메시지를 실습니다. 17일(주일), 오후 1시에 만나홀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메시지 쓰는 곳

##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회: (13교구) 최향봉 권사
- 3독: (1교구) 이은희 권사
- 2독: (1교구) 조선임 성도 (8교구) 김현주 권사  
(9교구) 조명녀 권사 (대학부) 김필구 전신일
- 1독: (1교구) 임송자 권사, 박현영 집사, 장양일 집사, 정정  
숙 권사, (3교구) 이해순 권사, 최정순 권사, 이경구  
집사, 이봉규 권사, (5교구) 최근자 권사, (7교구) 김  
인식 권사, (8교구) 이영자 권사, (11교구) 이경희2 권  
사, (12교구) 김인숙4 권사, (13교구) 고금란 집사, 김  
경애 성도, 오정숙 성도, 윤형준 성도, (교동부) 김남  
중, 이병훈, (대학부) 서명철, 홍성주, 김경현, 김민욱,  
김양언, 김진희, 박수진, 박지연, 송한솔, 오영석, 윤  
용진, 이우리, 임만용, 임종현, 조현정, 하정

## 2007년도 100교회 후원현황

- 5구좌: 스테반회 · 4구좌: 마리아전도회
- 2구좌: 루디아전도회, 이정수/최경분
- 1구좌: 12-2,7,8다락방 / 13교구 다락방장 / 강석우 / 강  
승웅, 서경애 / 교역자회 / 권장철, 유종숙 / 김경태,  
김민태 / 김광민, 박민숙 / 김광태, 최종희 / 김권집,  
왕경애 / 김금준, 이현주 / 김대호, 남순덕 / 김동진,  
박진주 / 김명옥, 오병호 / 김복녀 / 김상태, 김숙자 /  
김송배 / 김영민, 배병이 / 김영주 / 김영주, 이해순 /  
김영호, 박성금 / 김재근 / 김재중, 김유경 / 김정애 /  
김종자, 박진희 / 김철호, 안미경 / 김해영

(다음주 계속)

이민화권사(살롬권사회 회장)



“ 걸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살롬권사회 회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몇가지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신 고린도후서 4장16절 말씀같이 비록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살롬권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려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손자녀들이 믿음위에 바로서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로 세움 받도록 계속 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는 빌립보서 2장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회원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살롬권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살롬권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점점 소외되어져 가는 늙고 병든 우리의 이웃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새해에 바뀌는 것들

지난 12월 8일(금), 9일(토)에 있었던 2007 목회 정책 협의회에서 2007년,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1) 새해예배시 경배 찬송은 6장, 3부 예배 일례송은 50장으로 한다.
- 2) 찬양감독직 회복으로 분회의 기독교화를 촉진한다.
- 3) 찬양대원의 악보 공유를 위한 Library를 설치하고 관리 한다.
- 4) 교육부서마다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모든 교사는 전도학교에 등록하여 전도훈련을 받도록 한다.
- 5)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부(副)지도제를 신설하고 학생지도에 진력한다.
- 6)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한 가정에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 하고 축하와 심방을 철저히 한다.
- 7) 교역자 사모팀 Baby-sitting system을 운영하여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다.
- 8) 유아부 활동을 교회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한다.
- 9)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예배시 축도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 10) 성경암송대회(10월20일) 범위는 디모데후서로 한다.
- 11) 교사 공부는 찬양대원들처럼 가급적 주중에 하기로 한다.(월 1회 4주간 과목을 함께, 또는 Web site 에 올리는 방법도 할 수 있다.)
- 12)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공부 후에는 교사들과 심방, 전도, 기도, 교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 13) 교회학교 각국마다 성장목표를 1,000명으로 하고 추진한다.
- 14) 수요어린이예배시 한자 또는 영어 특별지도를 한다.
- 15) 교회학교 부서별로 요일별 문자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발송하여 영적 충전을 시킨다.
- 16) 대학부 팀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17)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꼭 드리도록 지도한다.
- 18) 디아스포라부의 영어교실을 재개토록 한다.
- 19) 사랑부 연령별로 I, II부로 나누는 건을 연구하여 실천토록 한다.
- 20) 에바다부에 영상 전화기를 설치하여 농아인들과 영상통신을 하도록 한다.
- 21) 새가족부 교사를 비롯하여 각부 교사 추천은 신중히 하도록 권장한다.
- 22) 신혼가정부에서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성을 심도있게 가르치고 지도한다.
- 23) 군선교 지원 부대를 2개 더 추가하되 공군, 해군, 해병대 중에서 한다.
- 24) 금요철야예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교구가 주력부대가 되어 모든 교인이 기도에 힘쓰게 한다.
- 25) 1·2교구는 단지역담당자제도를 도입한다.
- 26) 7·8교구는 교역자가 다락방 순회 심방을 하여 원거리 다락방을 독려한다.
- 27) 9·10교구에 이사 오는 분이 늘고 있어 전도범위를 확장토록 한다.
- 28) 11·12교구는 수요교구일꾼 내실화를 기한다.
- 29) 13·14교구는 부다락방장 활성화(월1회 인도케함)와 2,4주 토요일 가족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 30) 핵심전도대원 100명이상 확보하고 '07년 전도목표는 2,000명으로 한다. (올해11월까지 1,308명 등록)
- 31) 직능별 선교회(학원, 실업인) 활성화를 기한다.
- 32) 노회에 전도회, 선교회 대표 파송시 전도위원회 결의로 공식 파송한다.
- 33) 전도학교 화요반 강화하고 평일반 개설토록 한다.
- 34) KIMCHI 동문들(해외)의 추천을 받아 현지인 선교사를 확장한다.
- 35) Homepage에 개인이야기 또는 비본질적인 기사가 몇 사람에게 의해 게재됨으로써 홈페이지 본연의 역할에 지장이 있어 자유게시판을 삭제하고, 대신 관리자에게 건의사항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36) Web site 검색등록을 하여 서울교회를 치면 우리교회 Homepage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37) 상조부섭김위원들은 예복을 입기로 하고 철저히 교육토록 한다.

2007년 일꾼에게 듣는다

#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김금준 집사(스데반회 회장)



부족한 저를 스데반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회는 급년에 집사로 임직 받은 신입회원(제9대)을 포함하여 146명의 재적인원을 가진 매우 방대한 조직

로 성장하였습니다. 스데반회 회원은 서울교회의 향존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각 부서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스데반회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스데반회 회원들을 더욱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라는 것으로 알고 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는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는 교회표어에 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는 말씀과 찬송 372장(나 말은 본분을)을 주제성구 및 주제찬송으로 삼고 우리 스데반회 회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

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스데반회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예배, 교육, 전도, 교제, 경건 및 비전으로 나누고 위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우리 스데반회가 교회의 허리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 집사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고 결심했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교구 다락방모임을 주도하며 각 나선교회를 비롯한 각종 교회

회행사 및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 성도들의 신앙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데반회원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큰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스데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성타절칸타타

# 사랑의 왕

신용식 장로(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살과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도 주님께 고백할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여전한 우리의 죄와 허를 뿐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나 같은 것 때문에 떨시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예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입이 있다 해도 그 입으로 우리가 해

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을 연주합니다. Roger Strader작곡의 '사랑의 왕'은 시종 잔잔한 가운데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 담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이 계절에 지난 1년간 우리를 스치고 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찬양하시며 기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대학부 연극공연- 크리스마스의 리얼 로망

### 대학부 일동

금년도 대학부 오픈하우스 '공개방송 크리스마스의 리얼 로망'이 12월 23일(토)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립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과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줄이면서, 행사진행시 은연중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행되는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평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리라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댄스 공연, 초대된 이들의 사연을 편지로 미리 받아서 읽어주는 시간과 더불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밝히는 연극을 공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즐거운 곳인지 보여주고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모든 공연은 전문가 수준으로 준비합니다.  
대학부는 이번 행사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있는 것은 대학부 오픈하우스 전체 참석인원을 300명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 불신자 참석 1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다른 여타 교회의 신자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대학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겨울철 전열기 사용금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각 호실에서 개별적으로 커피 포트를 비롯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여 누전 및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호실에서 사용 중인 모든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8층 식당(만나 홀)을 이용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29일자 '동정란'에 신문래(이은숙) 목사의 현지 사정으로 러시아 선교사 파송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당회가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신 목사 부부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러시아 현지 선교사의 동의가 문제되어 서울교회가 몽골 선교사로 가도록 권유하면서 러시아 선교를 후원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신 목사 부부와 서울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현재 신 목사 부부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러시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동정

- 이종은 목사는 18일(월) 한국 기독교 학술원 임원회, 19일(화) 서울 여대 이사회, 21일(목) 군선교 사역자 헌신자예배에 참여한다.
- 개업 : (1교구) 김화경 성도 에듀페이스 독서실, 도곡동 548-8(럭키아파트 107동 앞)  
(12교구) 오은숙 집사 - '바이노블(중고명품판매) - 은마상가 A112호 T. 556-8675
- 이사 : (1교구) 안영환 성도 · 신정순 성도 대치3동 우성 2차 APT 205동 1006호  
(12교구) 이종열 집사 · 이귀숙 집사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9동 1015호  
(11교구) 신정순 권사 송파구 송파동 14번지 갑오빌라드 502호 T. 424-1070  
(13교구) 김보경 집사 은마@31-611
- 교역자 주스변경 : 한상은 목사: 송파구 오금동 119-5 다성이즈빌 603호
- 주간식당 봉사: 바울선교회(12월 17일), 엘리야선교회(12월 24일)
- 금주의 식사 : 김한중 집사 · 김광혜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 받은 이들, 주님을 닮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2.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와 결심이 있기를
3. 서울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위하여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